

# 대한두채협회 제15차 정기총회

“협회 결속 높이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자”  
지난해 사무실을 이전하며 협회 발전에 더욱 가속도를 내고 있는 (사)대한두채협회가 지난 1월 15일 동서울호텔 갤러리홀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 날 송석구 회장은 “두채업 발전과 회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정부공급 원로 품을 1만 2천여 톤을 공급함으로써 어려운 두채 삼입의 생산원가를 절감하였으며, 협회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회 공 공금정보를 두

재협회 홈페이지에 올려 전 회원이 볼 수 있게 하였다”고 강조하며 올해도 원활한 우량 종자 공급을 위하여 도입량을 늘여갈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07년도 말 농정시책의 유공으로 협회 서울서부 정경선 지부장, 충남 이일환 지부장이 농림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고 농림부 재소특직과 조용범 사무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정주훈 부장이 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 2 송석구 회장은 올해도 원만한 우량 종자 공 구입을 위하여 노임량을 올려질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3 정기총회에 참석한 내외빈 인사

4, 5 2007년도 말 농정시책의 유공으로 농림부장관님 표창의 영예를 안으신 서울서부 정경선 지부장님, 충남 이일환 지부장님과 공로패를 받으신 회원님

## 개 회 사

오늘 제15차 정기총회를 맞아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농림부 채소특작과 조용범 사무관님, 농수산물유통공사 정주훈 부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협회 고문님, 임원진, 지부장님, 지회장님 및 회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협회의 제15차 정기총회를 맞아 2007년도 말 농정시책의 유공으로 농림부장관님 표창의 영예를 안으신 서울서부 정경선 지부장님, 충남 이일환 지부장님과 공로패를 받으신 회원님께 축하드립니다.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해보면 세계적인 콩 작황부진으로 우량 종자공 보급이 어려웠으나, 협회는 두채업발전과 회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정부공급 원료 콩을 1만 2천여 톤을 공급함으로써 어려운 두채산업의 생산원기를 절감하였고, 우리의 숙원인 협회 사무실을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마련하여 이사한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회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회 콩 공급정보를 두채협회 홈페이지에 올려 전 회원이 볼 수 있게 하였고, 앞으로는 회원 각자 휴대전화에 문자로 정보를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6 농림부 채소특작과 조용범 사무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정주훈 부장이 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7 협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협회장 공로패를 수상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사)대한두채협회 지기열 이사, 서울남부지부 이양규 회원, 서울강남지부 이인옥 회원, 서울우이치회 이종복 회원, 서울중랑지회 김형석 회원, 경기서부지부 김중군 회원, 강원지부 김승래 회원, 대전지부 오민환 회원, 충남지부 최일석 회원, 광주지부 박명동 회원, 부산서면지회 여순자 회원 등이다. 8 이 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협회의 결속력을 다져나아가자고 함께 다짐했다.

다가온 2008년도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여 원활한 종자 공급을 위하여 도입량을 늘여갈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협회의 안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확립하여 영구적인 협회발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회는 회원여러분의 협회입니다. 따라서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협회의 결속력을 다져나아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협회가 되고, 회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참여하는 협회가 되어, 우리산업 발전과 우리 두채인의 긍지를 높이는 협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회원의 손발이 되어 회원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서도 현대 성인병에 시달리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전통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긍지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업에 종사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업계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좋은 식품을 공급하는 중요한 자리를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시상을 받으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회원여러분의 가정에서 행복과 하시는 사업이 금년에는 대운을 맞도록 기원 드리며 개회사로 가름합니다.

2008년 1월 15일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 회장 송 석 구